

# “농어촌민박시설 보험 가입하세요” 무주군 대학입시 합격률 91.9%

## 진안군,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 6월 9일까지 가입 적극 홍보

진안군은 15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어촌 민박 시설도 재난배상책임보험(이하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대상임을 알렸다. 군은 농어촌민박시설은 당초 보험 의무가입 대상 시설이 아니었으나, ‘강릉 펜션 가스사고’, ‘동해 펜션 폭발사고’ 등 농어촌 민박시설에서 잇따라 인명 피해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 10일부로 농어촌민박시설도 의무가입 대상시설에 추가했다.

대상으로 적극적인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홍보하고 나섰다. 읍·면에 홍보 자료를 배포하고, 가입유예 특례기간이 6개월이 주어져 오는 6월 9일까지 보험에 가입하도록 홍보했다. 정흥기 안전재난과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의무가입보험으로써 가입기간 내 보험 미가입시에는 가입의무 위반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농어촌민박시설이 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

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 일반적인 화재보험이 보험가입자 자신이 화재 등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받는 보험인 점과 차이가 있으며, 보험료는 대상 시설의 면적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통 100㎡기준 연간 2만원 정도이며, 보상한도는 신체피해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 재산피해는 최대 10억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진안군 국민체육센터 재개장...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

### 헬스장·에어로빅실 등 증축... 수영장·에어로빅실은 추후 재개장

진안군 국민체육센터가 헬스장 증축 공사를 마무리하고 15일 재개장했다. 국민체육센터는 2013년 건립해 헬스장 및 수영장, 어린이 풀장, 에어로빅실 등을 갖추고 운영하던 체육센터들

국민체육진흥기금 10억원 및 군비 5억원을 투입하여 헬스장 및 에어로빅실 등을 증축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진안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시

간대별 환기 및 소독을 실시하고, 손소독 및 발열체크, 출입자 명단관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세부 운영내용으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6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하며, 토요일 6시부터 18시까지 일요일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물체, 넷째 휴일) 수영장과 에어로빅실은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고 추후 재개장할 계획이다.

2019년에는 연간 7만5,496명이 이용했고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이용 인원이 줄어든 2만3,344명이 이용했다.

전춘성 군수는 “국민체육센터 개관을 기다리는 주민들이 많이 계셨다고 알고 있다. 이번 재개관을 통해 코로나 19로 답답한 마음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 19 안전 수칙을 잘 지켜 이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국민체육센터가 헬스장 증축공사를 마무리하고 15일 재개장했다.

## 장수군, 농식품 산업 육성 위한 지원 사업 추진

장수군은 농업과 농식품 산업의 연계 강화로 농산물 수요 확대 및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식품기업 및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친다. 이번 지원 사업은 ▲소규모 식품소재 및 반가공 지원 사업 ▲농식품기업원료수급 안정화 지원 사업 ▲농식품기업 HACCP컨설팅 지원 사업 등이

업은 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 관련 시설 및 장비 지원 등 개소당 최대 1억3,000만원(도비 21%, 시·군비 49%, 자담 3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농식품기업수급 안정화 지원 사업은 개소당 최대 2억(도비 18%, 시·군비 42%, 자담 40%)까지 계약재배 수매 농산물 저온저장고 신축 등을 지원받는다. HACCP컨설팅 지원 사업은 개소당 최대 800만원(도비 50%, 시·군비

20%, 자담 30%)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HACCP 인증 관련 사전 및 사후 컨설팅을 지원 받는다.

해당 사업 지원 신청은 읍·면에서 신청하면 된다.

장영수 군수는 “장수군은 농업과 농식품 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해 농식품기업 및 생산자 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적극 발굴하겠다”며 “다양한 농식품 유통 및 농업 환경 조성을 통해 사고 싶고 팔기 좋은 장수 농특산물 유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 무주군 대학입시 합격률 91.9%

관내 4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149명 중 137명 합격

2021학년도 대학입시(수시·정시) 결과가 마무리된 가운데 91.9%의 합격률을 보인 무주군 학생들의 입시 결과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무주고등학교를 비롯한 무주중과 설천, 안성 등 관내 4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149명 중 137명이 합격을 하는 쾌거를 올렸다.

이중 112명(81.8%)이 4년제 대학 입학 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67명(60%)이 서울대학교(1명)와 서울시립대(2명), 서울과학기술대(1명), 교원대(2명)를 비롯한 전북대(19명)와 충남대(7명) 등 국립대에 합격했다.

45명(40%)은 이화여자대학교(1명), 한국외국어대학교(1명), 한양대(1명), 단국대(1명), 건국대(3명) 등 사립대에 합격했으며 2~3년제 대학에는 25명(18.2%)이 합격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12명은 취업을 위해 대학 진학

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주군 관계자에 따르면 “무주군 관내 2020년도 대학 합격률 82.3%에 비하면 굉장히 고무적인 결과”라며 “앞으로도 무주군 학생들의 실력이 도시 아이들에게 뒤처지지 않고 노력 또한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공부하기 좋은 무주’를 만들기 위해 전체 예산의 2%(500여 만)을 교육 분야에 투자해 인터넷 수능방송과 원어민 화상영어, 방학기간 기숙학원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지난해부터는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을 통해 관내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한 학생 전원에게 학기당 100만원의 장학금(1인당 2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인구유출을 막고 지역인재를 양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장수군,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적극 홍보

### 인감증명서 대체 효력

장수군은 15일 주민편익과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과 사용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기존의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진 문서로 인감증명서의 부정발급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2년 12월 시행됐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서명을 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로, 신분확인 후 간단한 서명만으로 전국 어디서나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특히 대리발급이 불가할 뿐만 아니

라 사용용도와 수임인 기재가 가능해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해 안전하며, 행정에서도 인감대장 관리와 이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절감되는 장점이 있다.

주성덕 민원과장은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인감 위조사고와 부정발급 등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방지해 주민 편의 증진뿐만 아니라 인감대장 관리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절감해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정착되어야 할 제도”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이용과 등기소, 자동차매매상사, 금융기관 등 인감이 필요한 수요기관에서도 인감대신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제출받아 업무처리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 장수군, 독거노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 차세대장비 교체

장수군은 이달 19일까지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매내장비를 최신 ICT 기술을 적용한 차세대장비로 교체 및 신규 확대 보급한다.

15일 장수군에 따르면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독거노인 가정에 화재·가스감지기·응급 호출기 등을 설치해 화재·가스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상황을 알리고 119에 연결되도록 하는 서비스다.

이번에 보급되는 차세대 장비는 게이트웨이(응급전화기), 활동센서, 화재센서 등이며 기존 전화기 형태에서 모니터가 부착된 태블릿형태 단말기로

영상통화 및 다양한 생활유용서비스가 제공된다.

지원 대상은 기존 대상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까지 확대해 응급관리원 뿐만 아니라 생활지원사가 함께 휴대폰 웹을 활용·연계해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조금현 주민복지실장은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차세대 장비 보급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어르신들의 안전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 지역 소식 통

### 희망진안 실현 위한 군민아이디어 공모

진안군은 희망진안 실현을 위해 군민들의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아이디어 발굴에 나선다.

공모기간은 3월 5일까지이며 공모에서는 뉴딜분야를 따로 신설하여, 우리 지역의 여건에 맞는 다양한 뉴딜 관련 아이디어를 4가지 분야(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안전강화, 지역균형뉴딜)로 나누어 제안을 받는다.

뉴딜분야 이외에도 풍요로운 지역경제, 차별없는 맞춤형지, 미래희망·인재육성, 자유·힐링 명품관광, 공감하는 소통행정 등 기타 ‘희망진안’ 실현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제안을 공모 받는다.

이번 공모는 진안군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공모접수는 진안군청 홈페이지와 국민신문고, 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다.

접수된 제안은 진안군 제안심사 실무위원회와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시당월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부상(금상 50만원, 은상 30만원, 동상 15만원, 장려상 10만원)으로 진안고원 행복상품권이 수여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수군로컬JOB센터 7개 읍·면 순회 홍보

장수군로컬JOB센터는 이달 말까지 7개 읍·면 순회 홍보 활동을 전개하며 찾아가는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순회 홍보에서는 구직자들의 취·창업율을 높이기 위해 운영 중인 회계정보처리과정, 뇌인지훈련강사양성과정, 창업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와 소득지원을 결합해 지원하는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안내한다.

센터는 장수 군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의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올해 4년째 운영 중이며, 장수군에 거주하는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관련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지역 내 적합한 일자리를 알선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장수=고판호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